

고전 작품 해설번역의 의의: 『베오울프』 (Beowulf)를 중심으로*

이 동 일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본론
 - II.i. 두운작시법과 대구 등의 운율에 수반된 번역의 한계
 - II.ii. 어원에 입각한 의미 설정과 상응어 선택의 한계
- III. 해설 번역의 예
 - III.i. 해설 번역이 극복해야 할 과제
- IV. 결론

I. 들어가는 글

영문학에서 고전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시기는 대략 7세기부터 15세기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7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고대영문학과 11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중세영문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학적 분류와 달리 역사 및 사회학자들은 통상 7-15세기를 하나로 묶어 중세시대로 분류한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을 우리말 혹은 현대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는 많은 난관이 수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다양한 문학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고대서사인 『베오울프』 (Beowulf)를 비롯한 고대영문학 작품은 대부분 구전문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구전문학 전통은 초서의 『캔터베리아기』 (The Canterbury Tales)와 『가윈 경과 녹색기사』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에서도

*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그대로 재현된다.

영웅서사시 『베오울프』는 글 문학의 전통이 확립되기 이전에 유행했던 구전문학(Oral Literature)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구전문학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기법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호메르스 풍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반복(repetition) 효과가 주제, 소재, 구성, 장소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Lord 78). 또한 두운법(alliteration)과 같은 독특한 운율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두운은 음악적 효과를 뛰어넘어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 핵심 어휘 구성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 외에도 인물과 대상의 특징을 암시하는 형용어구(epithet), 동일 대상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변어(variation) 혹은 동격(apposition), 은유적 표현을 지닌 복합 명사(kenning)의 사용 등이 『베오울프』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시를 이해하는데 부수적인 과제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구전문학은 글 문학과 달리 고유한 문학적 기법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대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영어와 이질적 어휘 구조를 지닌 우리말 번역에서도 많은 난관을 부여하게 된다. 구전문학의 특징은 알버트 비로드(Albert B. Lord)가 밝히고 있듯이 듣고 전하는 구전문학의 특성 때문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혹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요소들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Lord 150). 이러한 특성 중의 하나로써 운율작시법을 꼽을 수 있는데 고대영문학의 경우 두운작시법(Alliteration)과 중세영문학에 있어 초서가 『캔터베리이야기』에서 도입한 대구(couplet)와 약강오보격(iambic pentameter) 들 수 있다. 하지만 고전문학의 우리말 번역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름 아닌 고전어인 고대영어와 중세영어의 어원에 입각한 우리말 상응어를 찾는 작업일 것이다. 이 경우 정확한 우리말 상응어 선택에 있어 해당 고전어가 고대영어(Old English)나 중세영어(Middle English)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게르만어, 고대 프리지안어, 고대 아이슬란드어, 고대불어, 라틴어 등과 같은 또 다른 고대어와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어원에 입각한 정확한 의미 설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영문학의 우리말 번역에 수반되는 난제를 규명하고 효율적인 우리말 번역의 예로서 상세한 해제와 다양한 고전 문학의 기법을 각주형식으로 풀어쓴 해설 번역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II. 본론

II.i. 두운작시법과 대구 등의 운율에 수반된 번역의 한계

영웅주의를 표방한 고대영웅시 『베오울프』의 경우 두 개의 반행에서 강음절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두운은 영웅주의를 표방하는 웅장한 어조와 영웅의 결의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 조합에 어울리는 최적의 운율로 간주된다(Klaeber lxx). 반면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의 경우 영웅시의 고양된 문체나 굳건한 결의를 드러내는 어감이 아니고 부드럽고 친밀감 넘치는 이야기체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2행에 걸친 이중대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운율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많은 현대영어 역자들이 두운과 대구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도를 행했으나 그 결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통감한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경우 왼쪽에 고대영어를 오른쪽에 현대영어 번역을 함께 실은 이중언어판(bilingual edition)을 선보임으로써 현대독자들로 하여금 원어에 내재된 두운 효과를 제한적이긴 하나 음미하도록 하였다.

Hwæt! We Gar-Dena in geardagum,
 þeodcyninga þrym gefrunon
 hu ða æþelingas ellen fremedon. (Beo 1-3)¹⁾

[So, the Spear-Danes in days gone by and the kings who ruled them had courage and greatness. We have heard of those princes' heroic campaigns. (Heaney 3)]

[자, 들어라! 우리는 **창**술에 능했던 덴마크인들, 덴마크 왕들의 위대한 영예와 그 군주들이 **옛** 적에 이룩한 용맹스러운 업적을 들어 왔

1) 본문에서 인용되는 『베오울프』 구절은 1950년 클레이버 판에 근거한다. Fr., Klaeber.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ition with 1st and 2nd supplement. Boston, MA, and London: Heath. 1950.
 우리말 번역은 저자의 시도임.

노라.]

『베오울프』 시인이 의도한 두운작시법을 준수한다면 현대영어 역자는 1행 *Gar-Dena in geardagum*에서 보여 지는 두운(*Gar*, ‘spear’+*Dena*, ‘Danes’)(*geardagum*, ‘yore’+*dagum*, ‘days’)을 현대영어 상용어인 ‘spear’와 ‘in days of yore’에 적용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즉, 강세를 받는 ‘spear’의 **s**나 ‘yore’의 **y**가 같은 시행의 다른 어휘에서 반복되었을 때 의도하는 두운은 형성되는 것이다. 두운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s**로 시작하는 **sp**ear 대신 **y**로 시작하는 ‘창’(y.....)을, **y**로 시작하는 **y**ore 대신 **s**로 시작하는 ‘옛 적’(s.....)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역자들은 현대영어어휘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고대영어와 현대영어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할 수 없는 괴리감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운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고대영어의 두운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말 ‘창’의 동의어 중에 ‘옛’ 음가와 비슷한 어휘를 고려하거나 역으로 ‘옛’의 동의어 중에 ‘창’의 발음과 비슷한 어휘를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두운을 둘러싼 이러한 번역상의 난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의 외형을 형성하는 운율인 두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주제나 소재를 형성하는 핵심어가 두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혹은 핵심어의 조합이 두운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다. 두운을 먼저 고려하고 시어를 조합했는지 아니면 특정 시어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두운을 맞췄는지 알 수 없지만 역자의 입장에서는 두운의 운율적 효과를 크게 의식하고 시작(詩作)에 임한 시인의 의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자의 과제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이야기』 번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Whan that aprill with his shoures soote
 The droghte of march hath perced to the roote,
 And bathed every veyne in swich licour
 Of which vertu engendred is the flour; (Prologue: 1-4)²⁾

2) 『캔터베리이야기』 인용구절은 로빈슨 판에 근거하며 우리말 해석은 저자의 시도가
 다. F. N. Robinson.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Oxford, New York: Oxford

[When April with its sweet showers/ has pierced the drought of
March to the root/ and bathed every vein in such liquor/ Of whose
virtue the flower is engendered.]

[4월의 감미로운 빗줄기가/ 3월의 건조함을 뿌리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모든 줄기가 그 생명력의 물기에 촉촉히 적시어지고/ 그리하여 꽃들이 피어
나고]

초서의 대작 『캔터베리아 이야기』는 영문학사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는 그가 시도한 다양한 주제 외에도 당대의 식자들이 사용했던 라틴어 사용을 거부하고 모국어인 중세영어를 고집하여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현대영어의 기틀을 마련한 점, 『캔터베리아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대구(對句)를 사용한 점, 현대영어 운율의 기틀이 되는 약강오보격을 사용한 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초서가 즐겨 사용한 대구는 그의 시의 운율을 규정하는 기준이자 동시대 작품들과 구별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수하고 정감이 배어 있는 이야기체로 이어지는 초서의 문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기제이다. 이러한 대구의 중요성이 고려되어 현대어 번역에서도 대구가 살아난다면 현대 독자들의 감흥은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행의 마지막 단어의 각운(rhyme)을 맞추는 작업은 다양한 동의어를 포함한 고도의 어휘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때론 어순(語順)을 바꿔 각운이 구성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하게 된다. 시의 부드러운 흐름과 정겨운 감흥을 돋우기 위해 도입된 초서의 대구는 비록 시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지 않지만 그의 시의 진면모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시의 1행과 2행의 마지막에 있는 중세영어 *soote*, ‘감미로운(sweet)’와 *roote*, ‘뿌리(root)’는 각운인 *-te*(터) 외에는 어떤 공통점이나 의미론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 번역의 경우 ‘감미로운(sweet)’가 ‘뿌리(root)’ 사이에 각운을 적용해야하나 이의 실제적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현대영어의 경우 어순에 상관없이, 즉 ‘with its sweet showers’ 대신 ‘with its showers sweet’를 사용한다면 다음 행의 ‘to the root’와 대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

는 어순의 파행은 짧은 시의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萬) 행이 넘는 『캔터베리이야기』에서 매번 예외 없이 사용된다면 중세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독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영시의 두운작시법³⁾과 중세 영시의 대구는 외형에 속하지만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면서 시의 내형인 스토리나 주제를 형성하는 어휘들의 조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역자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된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운율의 특이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번역은 반쪽 번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율상의 난제 외에도 고전문학의 번역에 있어 현대 역자들은 먼저 어원에 입각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추출하며 다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현대어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어 상응어는 어원에 입각한 고전어의 적합한 의미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자는 고문서학에 입각한 어원연구를 선행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헌학에 입각한 어원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학문적 역량이 축적된 연구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베오울프』와 같은 고전 작품의 번역은 많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II.ii. 어원에 입각한 의미 설정과 상응어 선택의 한계

고대영웅시 『베오울프』는 영웅주의라는 독특한 행동철학을 배경을 깔고 전개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되는 어휘 역시 영웅주의 행동관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시에서 사용되는 고대영어(Old English)가 복구의 다양한 고대 언어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의미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3) 두운작시법은 고대영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세 초기와 14세기 후반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Sithen the sege and the assaut was sesed at Troye,
The borgh brittened and brent to brondes and aske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1-2)

[When the siege and the assault were ended at Troy,
The city laid waste and burnt into ashes, (Winny 18)]

[트로이 도시에 대한 포위와 공격이 끝난 후/
도시는 파괴되어 불에 타 그을린 나무와 잿더미로 화했고.]

따르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으로 인해 역자들은 상응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시의 사상적 배경과 어원에 대한 고찰을 선행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고충은 ‘말하다(to speak)’의 의미를 지닌 고대영어 *mabelian*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Mabelian*은 고대영어가 아닌 고대 프리지안(Frisian)어인 *mabel*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mabel*은 ‘모이다, 집합’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대영어에서 사용되는 ‘말하다’의 의미와 커다란 차이를 이루게 된다.⁴⁾ 이 경우 어원에 입각한 *Mabelian*의 합당한 의미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다’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의 의미를 살려 번역할 경우 현대영어는 물론 우리말 번역은 문맥이 어색하게 되며 가독성 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오울프』에서 사용되는 *mabelian*은 사석이 아닌 영웅주의 집단인 코미타투스가 집결한 공공의 장소인 향연장을 중심으로 용사가 자신의 영웅적 기개를 내포하는 연설(speech)을 인도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와 같이 어원에 입각한 ‘공공의 장소’와 ‘영웅적 결의’라는 영웅주의를 고려했을 때 *mabelian*에 적합한 번역은 ‘모든 이들 앞에서 영웅적 기개를 토했다’(he uttered heroic resolution in the presence of warriors)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원에 입각한 *mabelian*의 현대어 번역은 모든 현대영어 역자들에 의해 ‘speak, tell, utter’로 전환되어 ‘말하다’ 정도의 의미만을 지니게 되는 매우 불완전한 상응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대어 번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설 번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에서 논의한 대로 주어진 고전어에 대한 상세한 어원적 의미와 함께 작품 속에 배어 있는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고증학적 자료를 제공하여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해설 번역의 필요성은 다음의 예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Hwæt! We Gar-Dena in geardagum,
beodcyniga brym gefrunon
 hu ða æþelingas ellen fremedon. (Beo 1-3)

4) Winfred P. Lehmann, ed.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E. J. Brill, p. 268. 1986.

[So, the Spear-Danes in days gone by and the kings who ruled them had courage and greatness. We have heard of those princes' heroic campaigns. (Heaney 3)

(Lo! We have heard of the glory of the kings of the people of the Spear-Danes in days of yore- how those princes did valorous deeds! (Clark Hall 20)

[자, 들어보라! 우리는 창술에 능했던 덴마크인들, 덴마크 왕들의 위대한 영예와 그 군주들이 옛 적에 이룩한 용맹스러운 업적을 들어 왔노라.]

『베오울프』의 대표적 현대영어 번역으로 클라크 홀과 히니의 판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번역은 현대영어 상용어 선택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 어느 한편은 오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의 첫 어휘인 *hwæt*에서부터 발견되는데 히니는 *so*, ‘그리하여’로 반면 클라크 홀은 *lo*, ‘들어보라’로 옮기고 있다. 왜 이와 같이 한 어휘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히니의 ‘그리하여’는 마치 시의 시작 부분이 앞서 진행되어 온 어떤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클라크 홀의 ‘들어 보라’는 앞서 진행된 이야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청중의 관심을 고대덴마크 왕들의 업적을 기리는 특정한 주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어원에 입각한 의미를 살펴보면 BT나 클레이버는 공통적으로 *hwæt*에 ‘lo, behold, well’ 등의 뜻을 부여하고 있다. 히니는 클라크 홀과 달리 *well*, ‘그래서’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시의 첫 부분에서 강조되는 특정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시의 유연한 흐름을 고려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많은 고대영시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 *hwæt*는 전통적 구전문학작시법의 하나로써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투적표현(formulaic expression)으로 간주된다(Whitelock 3). 이렇듯 자구 하나에서부터 해석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된다. *beodcyninga*의 해석에 있어서도 히니는 ‘왕들’을 반면 클라크 홀은 ‘백성의 왕들’로 해석하여 케닝인 *beodcyninga* [*beod* (nation, people) + *cyning* (king)]의 원의미를 살려 직역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라크 홀이 선택한 ‘백성의 왕’은 히니의 ‘왕’과 의미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의 배경이 되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에 입각한 특수한 구성원들의 모임인 코미타투스(*comitatus*)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코미타투스의 정점에는 왕이 위치하고 그 밑에는 소수정예 용사(*warrior, people*)들이 자리하게 된다. 이 둘 사이에는 보물하사와 충성맹세와 같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자인 왕은 단순한 왕의 이미지를 넘어서 용사(백성)들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보호자의 의미는 보물하사(*gift-giving*)를 통해 용사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증하는 왕의 역할과 직결된다. 왕의 이러한 보물하사에 대한 보답으로 용사(백성)들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주의에 내재된 왕과 용사(백성)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와 밀접성을 고려한다면 ‘왕’ 보다는 ‘백성(용사)의 왕’이 훨씬 타당한 현대어 상응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영어 *mabelian, lo, hwæt, beodcyninga* 등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학자들에 의해 정설로 굳어진 어원을 바탕으로 시의 행동철학인 영웅주의를 고려한다면 시인의 의도했을 원의미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어휘의 어원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역자들은 『베오울프』와 같은 고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남다른 부담을 지니게 된다. 『베오울프』에서 최대 난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bead-rune*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Unferð *mabelode*, Ecglafes bearn,
 þe æt fotum sæt frean Scyldinga,
onband bead-rune: (Beo 499-501)

[From where he couched at the king's feet,/ Unferth, a son of Ecglaf's, *spoke/ contrary words*. (Heaney 35)]

[쉴딩족의 군주 발 밑에 앉아 있던 에즈라프 아들인 운페르드는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

BT나 클레이버에 의하면 *bead-rune*는 ‘battle-words, battle-secret, battle-council, battle, battle-secret consultation’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와 같은 다양한 어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

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운페르드와 베오울프 사이에 전개되는 심리적 갈등구조이다. 자신(덴마크 용사)들이 격퇴하지 못한 괴물 그렌델을 처리하겠다는 외지인 베오울프의 출현에 운페르드의 자존심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위축된 상황에서 자신과 덴마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은밀한 화술을 사용하여 베오울프의 허장성세를 꺾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우리말 표현인 '비밀스런 분쟁의 말'이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원어의 의미와 시인의 의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고전번역은 앞서 살펴본대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또 다른 학술적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번역 자체가 학술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을 위한 별도의 안내, 즉 해설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원전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II. 해설번역의 예

자, 들어라!⁵⁾ 우리는 창술에 능했던 덴마크인들⁶⁾, 덴마크 왕들의 위대한 영예와 그 군주들이 옛 적에 이룩한 용맹스러운 업적을 들어 왔노라. 쉴드 웨빙⁷⁾은 주변에 대치해 있는 많은 종족들로부터 수차례에 거쳐 주연석(酒宴席)

5) 도입부 첫 머리에서 시인은 고대 영시에 자주 사용되는 상투적 표현 '들어라'(whæt "lo, indeed, listen")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6) 시인은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주체자인 덴마크 용사들을 *Gar-Dena* "Spear-Danes"라는 형용어구(epithet)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창'과 '덴마크인'의 합성어로서 '창을 잘 다루는 덴마크인, 창술에 능한 덴마크인'이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영웅주의 시대의 창은 무기의 대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Gar-Dena*의 의미는 '무기를 잘 다루는 덴마크인들' 혹은 '싸움에 능한 덴마크인들'의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7) 쉴드 웨빙(Scyld Scefing)은 덴마크 왕국의 전설적인 건립자로서, 보즈워스(Bosworth)와 톨러(Toller)의 고대 영어 사전에 의하면 그 이름의 앞부분 Scyld는 '방패'(shield)의 의미를 지니며, 뒷부분 *Scefing*은 '다발, 한 묶음의 건조 다발, 곡식 다발'(sheaf)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의 두 번째 부분에 포함된 '다발'의 의미는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의미하며, 고대 민속 신앙의 중심 테마인 풍요와 다산(fertility)을 상징하기도 한다.(Wrenn 52) 영웅주의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와 다산

을 빼앗았고, 그 군주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노라. 그의 시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안을 얻게 되었으니, 하늘 아래 날로 번창하여 모든 영예를 누렸고, 마침내는 인접 국가들이 고래의 길⁸⁾을 건너 와 복종의 표시로써 그에게 공물을 바쳤노라. 그는 실로 훌륭한 왕이었던다.

후에 궁중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는 영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그 백성들이 겪어 왔던 가중한 고통을 감찰하신 신께서 이를 위안코자 보내셨음이라. 그리하여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영광의 통치자이신 신께서 쉴드의 아들 베오울프⁹⁾에게 세상의 영예를 베푸셨으니,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노라. 자고로 젊은이는 그 부친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고귀한 보물들을 관대히 하사하여 후일 그가 나이 들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동료 용사들이 그 옆에서 그를 호위하며 그를 도와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¹⁰⁾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느 민족에서나 변영케 되느니라. 그리고 쉴드 왕은 운명의 때가 다다르매 신의 품으로 불러갔으며, 그의 친애하는 신하들은 오랫동안 이 땅을 다스렸던 온 백성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통치자인 그가 여전히 그의 말을 통해 다스리던 때 분부하신 대로 그를 바닷가로 모시고 갔노라. 항구에는 왕을 실어 나를 이물이 고리 모양으로 굽어지고 얼음이 덮인 배가 황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노라. 그들은 그들이 친애하는 자, 보물을 하사하시는 영광스러운 군주를 배 안의 돛대 옆에 안치하였노라. 배 안에는 먼 나라들로부

성이 다름 아닌 전쟁을 통한 승리를 기반으로 확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쉴드 웨빙의 이름에 나타나는 ‘방패,’ 즉 무기와 ‘곡식 다발’의 결합은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덴마크 왕족의 번영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된다.

- 8) 바다를 의미하는 케닝(은유의 성격을 지닌 복합명사)
- 9) 이 베오울프는 쉴드 웨빙의 아들로써, 이 시의 주인공인 베오울프와는 동명이인이다.
- 10) 군주는 신하들에게 보물을 하사함으로써 그 관대함을 입증하게 되며 동시에 성공적인 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물 하사’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형성되는 계약의 충실한 집행자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보물 하사자로서의 군주의 행동은 다름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함이고, 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는 특히 금으로 대변되는 보물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모험과 전투를 통해 부의 축적에 매진하게 된다. 영웅주의 사회에서 군주는 용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또한 이미 소속이 된 용사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금과 같은 보물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물의 가치는 영웅주의 사회가 상당 부분 실용적인 물질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터 가져온 온갖 진귀한 보물과 장식물들이 있었으니, 나는 일찍이 이렇게 훌륭한 전투용 무기나 전투복, 검, 그리고 쇠사슬 흉부갑옷 등을 갖추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노라. 왕의 가슴에는 그와 함께 드넓은 바다 물살을 가로질러 항해할 수많은 금은보화들이 놓여 있었노라. 그들은 백성들의 보물로써 그를 장식하였으니, 처음에 어린 몸인 그를 홀로 바다 건너로 보냈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욱 성대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왕의 머리 위로 높이 황금기를 매단 채 대양의 품에 그를 맡겨 바다로 하여금 그를 실어가게 하였으니, 마음은 슬펐고 가슴은 비탄에 젖었노라. 훗날 누가 그 뱃짐을 갖게 되었는지는 궁중의 현인들이나 천하의 그 어떤 용사들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노라. 덴마크 백성의 사랑하는 왕 베오울프는 그의 부친인 쉴드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자 오랫동안 그의 성중에 거하며 여러 나라에서 그의 이름을 떨쳤노라. 후에 위대한 헤알프데인이 태어났으니, 그는 생전에 고귀한 덴마크인들을 다스렸으며 늙어서도 용맹스러운 투사였노라. 군대의 통솔자인 헤알프데인에게 네 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으니, 즉 헤오르가르, 호로드가르,¹¹⁾ 선량한 할가,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호전적인 스웨덴 왕의 잠자리 벗, 즉 왕비가 되었다 하더라. 그리고 호로드가르 왕은 전쟁에서의 연승으로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그의 가신들은 기꺼이 신하로서 복종의 예를 취하였고, 마침내 그가 이끌던 젊은 용사들은 막강한 전투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노라.¹²⁾ 그의 의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으니, 이는 인간의 자식들이 여태

11) 시작 부분에서부터 강조되는 무기의 중요성은 무기를 그 구성 요소로 하는 복합 명사의 조합에서 잘 드러나는데, 덴마크 왕조의 설립자 쉴드 웨빙 [Scyld (**shield**) Scefing] 과 그의 후손들인 헤오르가르 [Heorog**ar** (**spear**)], 호로드가르 [(Hrothg**ar** (**spear**))] 의 이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덴마크 왕족들의 이름을 형성하는 주요한 형태소인 고대 영어 *Scyld*와 *gar* 는 '방패(**shield**)'와 '창(**spear**)'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무용(武勇)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주의 사회를 작품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된다.

12) 『베오울프』는 5-6세기의 북구 스칸디나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작품 속에 흐르는 행동 철학 및 도덕적 기조는 중세 게르만 부족 사회의 도덕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대의 사회를 존속시키는 힘은 다름 아닌 코미타투스(*comitatus*)로써, 이는 왕이나 군주와 신하 혹은 용사들 간의 쌍방 간 신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어휘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주로 부족 중심의 소규모 사회 집단에서 왕 혹은 족장을 중심으로 결속된 일군의 정예용사나 귀족들을 의미한다. 또한 코미타투스는 왕과 소수 정예용사 집단 간의 관계를 지칭하기도 하는

껏 들어본 적이 없던 거대한 향연장¹³⁾을 건립토록 하는 것이었노라. 그리하여 그 향연장에서 신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 가운데 공공 토지와 사람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나이를 막론하여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고자 했노라. 내가 듣기로 이 백성들의 궁을 장식하라는 왕의 명령이 지상의 여러 종족들에게까지 널리 하달되었다고 하노라.

궁의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져 때가 되매 그 완성을 보았으니, 이는 가장 큰 공궤이었노라. 말을 통해 널리 다스리던 왕은 이 궁의 이름을 헤오로트¹⁴⁾라고 명명하였노라.

.....중략.....

그러자 그 무리의 통솔자이며 우두머리 격인 베오울프가 말(語)의 보고(寶庫)를 터트렸노라.

“우리들은 예이츠족이며 히엘락 왕의 신복들이요. 나의 부친께서는 에즈데 오우라 불리며 여러 종족들간에 널리 알려진 고귀한 장수였소.¹⁵⁾ 그분은 오랫동안

데, 주로 정신적 기초, 즉 왕은 평화 시에 용사들에게 보물을 하사하고 용사들은 충성 맹세를 행하며 전투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상호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이 도덕률에 따르면 개별성 혹은 개인성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개인은 오직 친족과 군주와의 관계, 즉 집단 속에서만 사회적 기능과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Lee 173). 왕은 법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며, 용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왕과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의 안위를 위한 병역 의무를 완수하게 된다 (Ker 260-63). 이러한 상호계약은 대부분 왕과 용사 사이의 극히 사적인 관계이며, 많은 경우 보물과 같은 물질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상호 조약을 암시하는 구절은 『베오울프』에서 반복되며 시의 일관된 주제를 형성한다.

13) 고대 영웅시에서 향연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차적으로 코미타투스 (comitatus)의 일원들인 군주와 용사들이 평화 시에 향연을 즐기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을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군주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보물 하사(下賜)와 용사들의 충성 맹세를 통한 코미타투스의 결속을 다지는 군신 간의 맹약이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향연장에는 구성원들인 군주와 용사들이 있으며, - 때론 상류 계층의 여성들도 등장한다 - 군주가 하사하는 술과 술잔이 있고, 그 외 군주의 하사품인 금은보화, 말, 병기류 등이 있게 되며, 또한 여흥을 돋우는 시인과 악기가 있게 된다. 영웅주의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집합돼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향연장은 영웅주의 행동 철학이 형성되는 곳이다.

14) 수사슴을 의미한다.

동안 사시다 나이 들어 이 세상의 거처를 떠났소.

울프가르는 정중히 왕에게 말했다.

“에이츠의 용사들이 넓은 대양을 건너 이곳에 왔습니다. 용사들은 그들의 장수를 베오울프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군이시여, 그들은 전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대하신 왕이시여, 그들에게 회답해 주시기를 거절치 마옵소서.¹⁶⁾ 이제 저는 그 괴물 그렌델을 홀로 대항해서 사생결단을 내겠습니다. 영

15) 자신이 속한 코미타투스를 밝히며, 자신의 부친을 포함한 종족의 혈연관계를 통하여 단계 별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영웅주의 사회의 전통적 화술로 간주된다. ‘누구의 아들’과 같은 표현은 서사시의 기본 작시법인 상투적인 문구(formulaic expression)에 속하며 『베오울프』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자신이 속한 영웅주의 사회를 먼저 알리는 것이다. 베오울프 역시 자신의 개별적인 소개 전에 자신이 속한 집단, 즉 히엘락의 신복 혹은 정예부대(heorð geneatas)를 먼저 밝힘으로써 자신보다 집단의 존재가치를 중시하는 영웅주의 사회의 관습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베오울프의 화술에 대해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은 베오울프가 귀족 사회 계급의 일원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Irving 1968, 52). 개인의 소개에 앞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의 화술은 ‘we’로 시작하는 그의 말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전개되는 모든 업적이 한 개인인 ic, ‘I’ 보다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we를 내세운 베오울프의 화술은 시작에서부터 자신을 낮추고 집단을 부각시키려는 베오울프의 영웅적 성향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덴마크에서 진행되는 모험의 승패 여부가 베오울프 한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개인보다 집단을 내세우는 베오울프의 태도는 영웅주의 행동 철학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16) 자신들이 포기한 그렌델과의 전투를 감행하기 위해 덴마크에 도착한 외국의 용사 베오울프의 등장은 울프가르를 포함한 덴마크 용사들에게는 그 자긍심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울프가르가 호르드가르 왕에게 한 간청은 베오울프의 등장에 따른 시기와 질투를 초월한 상태를 보여 주며, 전사들의 자존심을 둘러싼 영웅주의 사회의 미묘한 심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왕의 포고관으로서 그의 임무는 베오울프의 도착을 왕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울프가르는 왕에게 베오울프와 대화를 나누도록 간청하고 것이다. 더욱이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탄원조로 애걸하는 말투를 구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울프가르는 호르드가르 왕이 베오울프의 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베오울프와의 면담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여 왕에게 간청 혹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포기한 그렌델과의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베오울프의 출현은 그들의 영웅적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르드가르 왕의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미리 간파했기 때문에 울프가르는 전령자의 위치를 뛰어 넘어 애절한 간청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해안 경비 대장의 말은 표면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반면, 울프가르의 말은 표면과 내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울프가르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능력의 소

에로운 덴마크인들의 군주시여, 월딩족의 수호자시여, 용사들의 방패시여, 백성들의 고결한 친우시여, 저의 간구를 저버리지 마소서.¹⁷⁾

월딩족의 군주 발 밑에¹⁸⁾ 앉아 있던 에즈라프 아들이 운페르드는 비밀스런

유자로 간주된다. 또한 wlenco ‘(용사의) 기개’와 higeþrymnum ‘담대한 마음’과 같은 어휘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울프가르는 영웅주의를 둘러싼 경쟁 의식과 자존심을 간파하는 심리적 판단에서도 탁월함을 보여 주고 있다.

17) 외지인 베오울프는 덴마크에 도착하여 괴물 그렌델에 맞서 무용을 달성해야 하는 영웅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처리하지 못한 괴물을 무찌르겠다는 외지인 베오울프의 등장은 곧바로 덴마크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들의 전사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간파한 베오울프는 덴마크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고도의 화술을 발휘한다. 괴물과의 전투에 앞서 베오울프는 먼저 왕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베오울프는 4개의 다른 호칭을 사용하여 왕을 부른다. 베오울프의 말은 애절한 간청과 탄원의 어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처한 상황을 살펴 볼 때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베오울프는 왕에게 괴물 그렌델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데, 사실 간청의 주체는 베오울프가 아닌 괴물 그렌델의 급습으로 인해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덴마크인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웅주의 시대의 영웅적 자존심을 간파한 베오울프는 이러한 심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간청자의 위치로 낮추며 동시에 왕을 부르는 4 개의 다른 변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염원을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베오울프의 화술에 사용되는 변어와 형용어구들은 왕의 위대한 업적과 광활한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영도자로서의 영웅주의 사회의 이상적인 군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왕을 지칭하는 변어의 반복으로 인해 문맥의 흐름이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연은 변어가 지니는 통상적인 지연 효과와 달리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며, 동시에 주어진 상황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포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효과로 여겨진다(Ronbinson 60). 변어를 통한 의도된 지연에 관한 로빈슨 교수의 주장은 클레버 교수가 파악한 ‘사실의 나열이나 영웅적 행위를 구술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태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변어의 지연 효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Klaeber Iviii). 이러한 지연 효과는 베오울프의 화술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베오울프 혹은 시인은 왕을 지칭하는 4개의 변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인 지연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의도의 내면에는 대화의 상대자인 왕의 실추된 영웅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자신이 바라는 왕의 허가를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군주의 발 밑에’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종(從)과 같은 미천한 신분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군주에 그 정도로 가까이 위치함을 알림으로써 그가 군주의 신뢰를 얻은 자로서 궁중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의 신뢰를 상징하는 ‘군주의 발 밑에’라는 표현은 덴마크 최고의 용사인 운페르드(Unferth)가 향연장에 위치한 자리에서도 입증된다. 덴마크에 당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¹⁹⁾ 그에게는 그 대담한 항해자인 베오울프의 원정이 커다란 유감이었으니, 이는 지상의 그 어떤 용사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노라.

“그대가 넓은 대양에서 브레카와 수영 시합을 벌였던 베오울프인가? 그대들은 자부심에 넘쳐 바다에 도전했고, 과도한 허세로써 깊은 바다 속에 그대들의

도한 베오울프와 그의 일행을 환대하는 항연장에서 운페르트는 덴마크 왕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왕국을 구하겠다는 의지인 베오울프의 출현은 운페르트를 비롯한 덴마크 용사들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같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페르트는 덴마크 용사들을 대신하여 베오울프에게 호언장담이 아닌 행동으로 무용을 입증하라는 의미의 도전적인 언사를 건네게 된다. 외지에서 온 구원자인 귀빈에게 이 같은 돌발적인 언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덴마크의 자존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는 그가 왕의 ‘대변인’ ðyle(Beo 1456)으로 불리는 데서도 입증된다. 또한 그가 고대의 훌륭한 보검인 흐룬팅(Hrunting)(Beo 1457)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뛰어난 무용을 과시하여 그 보검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Whallon 101) 이러한 운페르트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직책을 고려할 때,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군주의) 발 밑에’는 왕의 충애와 신뢰를 상징하며, 그가 높은 사회적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 밑에 앉다’라는 표현은 영웅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 19) 시인은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라는 표현을 빌어 베오울프의 자질은 물론이요 그의 정체성에 회의를 표명함으로써 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운페르트의 의중을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게 되자 베오울프는 곧장 되받아치는 화술을 전개한다. 곧 이어지는 설전 양상은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라는 논평을 통한 시인의 의도인 ‘기대유발,’ 즉 독자들로 하여금 운페르트와 베오울프 사이에 본격적인 기(氣) 싸움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인이 언급한 ‘그 어떤 용사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노라’에서 알 수 있듯이 운페르트의 간섭은 외지인 베오울프의 등장에 대한 견제 심리의 발로이며, 자신을 능가하는 영웅적 업적을 달성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입각한 자존심의 문제이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능가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영웅적 결의로 간주된다. 또한 시인이 언급한 ‘비밀스런 분쟁의 말’ beadurune은 다음에 전개되는 운페르트의 화술이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그의 화술이 직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화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운페르트는 덴마크를 구하겠다고 온 베오울프에게 매우 무례한 언사를 던지고 있으므로 ‘불협화음’ 혹은 ‘평화의 파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펼쳐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Bloomfield 410). 하지만 그가 사용한 핵심어들을 영웅주의 행동 철학과 영웅들 사이의 경쟁의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그것들이 영웅주의를 규명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실로 운페르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견지해 온 영웅주의 행동 철학을 우회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심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목숨을 내걸었었지. 그대들 둘이 바다 수영을 감행했을 때 친구나 적 그 누구도 슬픔을 초래하는 그 모험을 말할 수 없었지. 그대들은 바다 물결을 감싸 안고 항로를 헤쳐 나갔지. 바다 물결을 양팔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지. 대양에는 파도가 일었고, 겨울 바다는 세차게 파동쳤지. 자네들은 칠 일 밤이나 세찬 물결 속에서 분투했지. 기력이 더 센 브레카는 그 수영에서 자네를 앞질렀지.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는 바다 물결에 의해 헤어드램의 해안으로 밀려왔지. 브룬딩인들의 땅인 그 소중한 고국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성체에 다다라 그곳에서 백성과 궁궐 및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지.²⁰⁾ 베안스탄의 아들 브레카는 자네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네. 그러므로 어느 전쟁에서나 그 무서운 격량을 헤쳐낸 자네라고 할지라도 감히 그대가 가까이에서 그랜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III.i. 해설번역이 극복해야 할 과제

시어의 조합 속에 내포된 고전어의 다양한 함의와 시의 배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해설번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베오울프』는 현대독자들이 접하기 힘든 두운작시법과 독특한 어휘조합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설 번역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때론 고도의 학적인 견해가 첨가된 해설 번역이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를 제외한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방대한 학술자료를 어느 선까지 정리할 것이며 동시에 현대독자들에게 낯선 현학적인 학술어를 어떻게 평이한 어투로 전달할 것인가 등도 역자가 고심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독자의 가독성

20) 운페르트는 베오울프든 브레카든 그들이 젊은 혈기에 무모하게 바다 수영에 참가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 수영 시험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 수영 시험에 참여한 브레카도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레카는 운페르트에 의해 진정한 영웅으로 묘사되며 아낌없는 찬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워드 파크 교수가 지적한대로 운페르트는 베오울프의 ‘영웅적 자질을 검증’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Park 213).

을 고려해야 하는 역자의 고뇌는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이분화된 해설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바로 밑에 첨가되는 해설에는 독자의 가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간단한 해설을 평이한 문체로 제공하고 각 장의 말미나 번역의 끝에는 더욱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한 별도의 해설 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레이어아웃은 독자의 가독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역자가 시도한 해설 번역은 장단점을 지니게 된다. 고전번역에 수반되는 제반 난제들-예를 들면 어원에 입각한 고전어의 정확한 의미와 현대 상용어 설정, 운율과 결합된 핵심어의 조합, 현대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어휘 조합, 작품을 관통하는 행동철학, 구전문학 작시법 등-에 대한 배경 설명 혹은 해설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고전 작품의 현대어 번역은 원전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작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해설 번역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고전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플롯 중심의 작품 이해가 주목적이라면 이러한 상세한 해설은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할지도 모른다.

3182행에 달하는 『베오울프』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현재에도 원어의 적합한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베오울프』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들의 기원이 모호하고 설상가상으로 화재로 인해 원본텍스트의 가장 자리가 손상되어 판독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어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원어에 충실한 현대어 상용어를 추출한다는 것은 적잖은 모순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전 번역에 임하는 역자들은 번역의 범주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학술적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고전 작품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상세한 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난해한 학술적 해설이 자칫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리는 과제로 남게 된다. 『베오울프』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의 하나는 영웅주의를 둘러싼 심리적 갈등구조인데 이는 시의 초반부에서 벌어지는 운페르드와 베오울프 사이에 벌어지는 설전에서부터 증폭되기 시작한다. 이 설전은 약 100행에 걸쳐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다루어지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이 집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영웅주의를 표방하는 난해한 어휘들이 시인의 정교한 어휘조합을 통해 배치되어있다. 만약 일반 독자들이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어휘조합에 관한 해설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이해는 이야기 중심의 극히 제한적인 이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독자들이 상세하고 난해한 해설을 꼼꼼히 참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면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가독성은 크게 저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이분화된 해설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바로 밑에 첨가되는 해설에는 독자의 가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간단한 해설을 평이한 문체로 제공하고 각 장의 말미나 번역의 끝에는 더욱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한 별도의 해설 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레이아웃은 독자의 가독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이동일 역. 『베오울프』.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10.
- 이동일 역. 『가원경과 녹색기사』.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10.
- 이동일, 이동춘 역. 『켄터베리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Ayres H. M. "Finn Episod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6 (1917): 282-95.
- Bloomfield, M. W. & C. W. Dunn. *The Role of the Poet in Early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Bosworth, Joseph and T. Northcote Toller, eds.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Brodeur, Arthur G. *The Art of Beowulf*. Berkely, CA: U of California P, 1971.
- Clark Hall, John R. *Beowulf and The Finnsburg Fragment*. Trans. with prefatory remarks. J.J.R. Tolkie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 Davis, Norma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2nd rev. edition of J.J.R. Tolkien and E.V. Gordon. Oxford: Clarendon, 1967.
- Garmonsway, G. N. *Beowulf and its Analogues*. Trans. London: J. M. Dent & sons, 1968.
- Heaney, Seamus, trans. *Beowulf*. London: Faber, 2007.
- Klaeber, Fr.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 with 1st and 2nd supplement. Boston, MA: Heath, 1950.
- Lehmann, Winfred P.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E. J. Brill, 1986.
- Leslie, Roy F, ed. *The Wanderer*, Manchester: Manchester UP. 1985.
- Leyerle, John. "The Interlace Structure of *Beowulf*."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1967): 1-17.
-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Cambridge, MA: Harvard UP, 1960.

- Parks, Ward. *Verbal Due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English Tradi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0.
- Robinson, Fred C, ed. *The Riverside Chaucer*, Oxford: Oxford UP. 1987.
- Rosier James L, ed. *Essays: Studies in Old and Midd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Hague and Paris: Mouton, 1970.
-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U Library, 1978.
- Whitelock, Dorothy. *Beowulf*. Oxford: Oxford UP, 1982.
- Winfred P. Lehmann, ed.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E. J. Brill, 1986.
- Winy, Jame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Ontario: Broadview, 1997.
- Wrenn, C. L, ed. *Beowulf with the Finnesburg Fragment*. London: Harrap, 1973.
- Wyatt, A. J. *Beowulf with The Finnsburg Fragment*. new edition revis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Cambridge: Cambridge UP. 1933.

Abstract

A Study on the Expository Translation of Classics: Focusing on 『Beowulf』

Lee, Dongill

Unlike modern translation the rendering of classics will face various cruces owing to unique word combination, unusual rhythmic pattern, and ambiguous etymology. Seamus Heaney's modern English translation of 『Beowulf』 has been much acclaimed by the critics and general readers as well. However, his translation seems to fall short of the accurate reading of 『Beowulf』, which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eroic principles forming the backbone of *comitatus* and the thorough knowledge of Old English based on etymology. This kind of accurate reading and the ensuing translation can possibly be inconceivable either in the forms of literal translation or sense by sense translation. Hence the necessity of expository translation arises. Apart from the main body of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text this expository translation will contain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knowledge of the poem in the form of footnote. Surely the expository translation will enhance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given work. However, problems will still remain on the matter of choosing the exact original meaning based on etymology,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amongst scholars. Besides, reader's readability might be decreased because of pedantic explanations attached with special jargons. In this respect the translator should be mindful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explanation and the expectation of readers.

Key Words: Translation of classics, expository translation, etymology,
limit of classical translation, poet's intention

고전번역, 해설번역, 어원, 고전번역의 한계, 시인의 의도

논문접수일: 2014.11.15

심사완료일: 2014.12.21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이동일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대문구 이문동 제 1연구동 211호

이메일: dongbeo@hanmail.net

